

# 사회자본의 개념과 현황<sup>1)</sup>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Social Capital

이영수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글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후, 한국의 사회자본 현황을 탐색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실증적 검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사회자본 하위 지표(제도 신뢰, 일반 신뢰, 네트워크, 호혜 규범)를 중심으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집단들 간 사회자본 보유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를 동시에 고려한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보유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 보유 수준과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저학력, 저소득,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사회자본 보유 수준 역시 낮았으며,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별로 집단별 사회자본 분포가 상이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강화를 통해 사회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 1. 들어가며

가. 왜 사회자본에 주목하는가

많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사회자본 관련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자본의 다양한 효과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오고 있다. 사회자본이 연대, 호혜, 지역공동체 등의 개념과 등치되면서 ‘정적 효과 편향(positive effect bias)’이라

1) 이 글은 정세정, 김기태, 김태완,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의 2장 일부 및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고 칭해질 만큼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사회자본은 집합적 행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민주주의의 작동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 수준에서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도 하고, 특히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이 학업 성취, 건강, 사회이동성, 직업 지위 등 다양한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Albano & Barbera, 2010; Putnam, 1995, 2000; Rothstein & Stolle, 2008 등).

이 글에서는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한다. 사회자본은 사회배제, 불평등, 사회이동 등과 함께 사회통합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사회자본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Berger-Schmitt, 2000; 김문길 외, 2019; 여유진 외, 2015). 사회배제와 사회자본 간의 부정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사회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사례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김정원, 2007) 등을 통해 사회배제와 사회자본이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복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자본에 주목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

심적인 제도적 수단이며, 복지국가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한국의 상황에서는 ‘국가’를 통한 복지의 제도화가 사회배제 대응에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통한 대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배제 문제를 물질적 박탈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권리, 기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 제한하여 사회적 관계, 완전한 참여, 규범적 통합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사회배제의 측면을(Silver, 2007) 간과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며,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이 상호 보완성을 지니며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점과 주장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제도 중심 접근(institution-centered approach)에 주목한다.<sup>2)</sup> 제도 중심 접근에 따르면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 간의 ‘계약’에 관여하는데, 계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입법, 권리의 보호 및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취약계층 보호, 시민의 통합과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Rothstein & Stolle, 2008).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제도 신뢰, 일반화된 신뢰 등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관대하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는 사

2)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상호 보완적 선순환을 강조하는 제도 중심 접근에 주목하는데, 많은 실증연구의 결과들이 이러한 접근을 지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정세정 외(2021)의 2장을 참고.

회보장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사회권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일반 신뢰, 사회규범을 강화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rragina, 2017; Rothstein, 2001; Rothstein & Uslander, 2005). 또한 복지국가는 자발적 조직에 투자하고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기도 하고(van Oorschot & Arts, 2005), 복지국가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완화, 사회적 이동성 강화를 통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Rothstein & Uslander, 2005). 즉 어떤 복지국가인가에 따라 복지국가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견고한 바탕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과 협의에 기반한 협력은 시민참여의 주요 형태인 동시에 다시 복지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Kuhnle & Selle, 1992; Loga, 2018; Svendsen & Svendsen, 2016).

사회자본과 복지국가 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배제의 제도적 측면에 대응하고,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자본을 강화하고 사회자본이 다시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제도적 측면을 넘어 사회배제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즉, 사회자본은 그 자체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복지국가

와의 상호 보완적 선순환을 통해 사회배제 대응의 핵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 나. 연구의 목적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사회자본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간략하게 논의한 후 한국 국민이 어떠한 종류의 사회자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회자본 하위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한 사회자본 보유 유형의 분포가 어떠한지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본다. 특히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집단들 간에 사회자본 수준 및 유형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회자본 하위 지표별로 이러한 집단별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 글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사회배제 대응을 위해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전략과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누가 어떠한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집단별로 표적화된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2.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

### 가.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

사회자본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며, 추상성과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과학의 많은 영역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사회자본을 타당하게 정의 내리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가 사회자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지점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Fine, 2002; Kadushin, 2004; Li, Scriven & Garman, 2007 등).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논쟁을 여기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Bourdieu(1985), Coleman(1988), Putnam(2000), Lin(2001) 등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통된 개념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동의되는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한다.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정의 제도화된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했다(Bourdieu, 1985, p. 248). 콜먼은 특정한 행동을 촉진하는 사회구조로서의 사회자본을 강조했는데,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사회자본을 제시했다. 의무와 기대의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및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정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

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규범과 제재를 논했다(Coleman, 1988, 1990). 사회자본 연구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정치적 담론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 규범,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를 포함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로 정의했다(Putnam, 1995, p. 67). 사회자본에 대한 OECD(2001)의 정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집단 내·집단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정의에서 학자들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퍼트남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시민사회, 시민 참여의 전통과 연결하고 확장을 시도하면서 사회자본의 원인인 결사체 참여, 시민 참여, 정치 참여 등과 그 결과인 신뢰, 호혜 규범 등을 사회자본의 개념 내에 포괄하고 있다. 사회자본 개념의 양극단을 도구적 가치(자본)와 시민 정신(사회)으로 본다면, 콜먼과 같은 학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자원으로 ‘자본’의 측면, 즉 도구적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퍼트남은 공공의 덕목으로서 시민 정신, 즉 ‘사회’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다(Li, Scriven, & Garman, 2007).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원이라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속성을 지니며, 대체로 신뢰, 네트워크, 호혜 규범의 세 가지 차원이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교화하는 작업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신뢰를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와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는 다양한 경제적·종교적·인종적·문화적 집단 간의 결속을 반영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집단 간 신뢰를 의미하며, 후자는 사회의 각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긴장을 반영하는 집단 내의 믿음이다(Rothstein & Uslaner, 2005). 사회자본의 유형을 그 속성에 따라 결속(*bonding*) 사회자본, 교량(*bridg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여기에 연결(*linking*) 사회자본이 더해지기도 한다. 특히 사회자본의 이러한 유형 구분은 의미가 있는데, 예컨대 사회자본의 보유 형태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조직적·개인적 수준의 결과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속 사회자본은 동질적 집단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밀집되고 높은 수준의 개인 간 신뢰가 특징이다. 교량 사회자본은 경제, 종교, 인종 등으로 구분되는 이질적 집단 간의 사회적 연결을 의미하며, 연결 사회자본은 사회적 위치 및 권력의 차이에 기반한 위계 구조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Woolcock, 2001).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사회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호혜) 규범의 세 요소로 개

념화하였으며, 신뢰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나. 사회자본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한국 국민의 사회자본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글의 분석에 활용된 사회자본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사회자본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참여, 자본, 인식 조사’<sup>3)</sup>에 포함된 전체 표본을 무작위로 두 개의 표본으로 나누고, 첫 번째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 관련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모형을 수정·보완한 후, 두 번째 표본을 대상으로 수정·보완된 사회자본 측정 모형의 타당성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자본 측정 모형이 표본의 하위 집단 간 측정의 동등성(*invariance*)을 갖는지 추가로 검토하였는데, 예컨대 성별, 연령, 지역 등으로 집단을 나누고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회자본 측정 모형을 바탕으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에 대한 요인점수를 계산하였다. 요인점수는 각각의

3) 이 글에서의 실증적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참여, 자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로, 사회배제 관련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60대 이상 표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한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의 분석에서는 60대 이상 표본을 제외한 8,18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표 1. 사회자본 측정

구분		내용	비고
사회자본 핵심 지표	네트워크	·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 및 지인의 규모 · 어려움은 소득, 노동, 건강, 정치·사회참여 영역별로 상황을 구체화하여 제시	
	신뢰	제도 신뢰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지방정부, 언론에 대한 신뢰 정도
		일반 신뢰	·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귀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문항으로 측정
	규범	·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때때로 정직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날더라도 항상 법을 지켜야 한다”, “때때로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 3문항으로 측정	유럽사회조사 (ESS) 문항

자료: 정세정, 김기태, 김태원,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8 (표 3-1-1).

사회자본 요인에 포함된 하위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하위 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 평균 점수 등에 비해 분석상 장점을 지닐 수 있다. 사회자본의 요인별 신뢰도는 크론바흐알파 계수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글의 분석에서 활용하는 사회자본 측정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다. 사회자본 보유 형태 유형화

사회자본의 보유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회자본의 하위 항목별 요인점수를 지표로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분석에 포함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표본의 하위 유형을 확인하는 사례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군집분석 등 다른 통계 방법들과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을 지닌다(Muthen & Muthen, 2000; Spurk et al., 2020). 첫째, 표본에 속한 사례들이 계층에 속할 확률을 바탕으로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통해 표본에 속한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통계적 강건성이 높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다양한 모형 적합도 통계를 제공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계층 수를 선정할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수학적 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Peugh & Fan, 2013).

$$\sigma_i^2 = \sum_{k=1}^K \pi_k (\mu_{ik} - \mu_i)^2 + \sum_{k=1}^K \pi_k \sigma_{ik}^2$$

여기서  $\mu_{ik}$  와  $\sigma_{ik}$ 는 변수  $i$ 에 대한 프로파일  $k$ 의 평균 및 분산,  $\pi_k$  는 프로파일 밀도(density) 또는 프로파일  $k$ 에 포함되는 표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는 몇 가지 가정이 포함된다. 첫째, 이질적인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은  $k$ 개 프로파일 분포의 혼합인 데이터를 반영한다. 둘째, 관찰된 지표들은 정규분포를 보인다. 셋째, 프로파일에 특징적인 평균 벡터  $\mu_k$ 는  $k$  프로파일의 관찰된 변수 평균과 같다. 추

표 2. 잠재프로파일분석 모형 적합도

계층 수	BIC	엔트로피(Entropy)	LMR(Lo-Mendell-Rubin) 검증
1개 집단	63,833	-	-
2개 집단	61,661	0.55	2,169.43***
3개 집단	60,956	0.65	734.06***
4개 집단	60,775	0.68	220.99

주: N=8,185, \*\*\* p < .001.

자료: 정세정, 김기태, 김태완,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9. (표 3-2-1).

정상 효율을 위해 지역독립성(local independence), 동질성(homogeneity) 가정 등의 제약이 일반적으로 추가된다(Spurk et al., 2020).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장점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모형적합도 통계치를 통해 최적의 계층 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모형적합도 통계치 중 여기에서는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 (Lo-Mendell-Rubin) 검증, 엔트로피(entropy) 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BIC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적합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LMR 검증은 k개 계층 모형과 k-1개의 계층 모형을 비교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검증 결과로는 k개 계층 모형이 선호됨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클수록 모형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Lo, Mendell, & Rubin, 2001; 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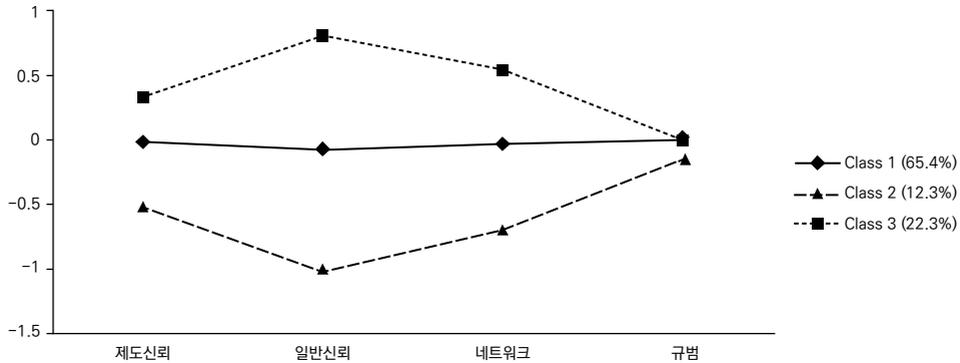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자본 보유 형태를 유형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는 제도 신뢰, 일반 신뢰, 네트워크, 규범 4개 지표를 활용한 분석의 모형 적합도 통계치가 제시되었다. BIC 값은 3개 집단보다 4개

집단에서 낮고 엔트로피 수치는 4개 집단에서 다소 높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LMR 검증에서는 명확하게 3개 집단 모형이 선호됨을 보여 준다.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개 집단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림 1]에는 3개 집단 모형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집단 1에는 전체 표본의 약 65%가 포함되는데, 사회자본의 네 개 지표 모두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 집단 2는 전체의 12% 정도가 포함되는데, 사회자본의 네 개 지표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집단 3은 전체 표본의 22% 정도가 포함되는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집단별로 사회자본 하위 지표별 보유 수준이 교차되기 보다는 모든 지표에서 높거나, 중간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는 형태의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일반 신뢰는 집단별 보유 수준 차이가 가장 큰 반면, 규범은 집단별 보유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1은 '중간 수준 사회자본 집단', 집단 2는 '낮은 수준 사회자본 집단',

그림 1. 사회자본 보유 형태 유형화 결과

(단위: 점)



자료: 정세정, 김기태, 김태원,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9. [그림 3-2-1].

집단 3은 ‘높은 수준 사회자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3.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자본 보유 현황 및 보유 유형

#### 가. 사회자본 보유 현황

여기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자본 보유 현황 및 분포에 대해 몇 가지 기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주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별 분포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제도 신뢰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일반 신뢰, 네트워크, 규범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자본의 유형에 따라 성별 차

이가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일반 신뢰 및 네트워크는 남성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규범은 여성 집단에서 더 높았다. 연령 집단별로도 사회자본의 분포가 상이했는데, 20대에서는 제도 신뢰와 네트워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 신뢰나 규범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40대의 네트워크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저학력에서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지역별 사회자본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구 구성별 사회자본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사회자본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네트워크는

표 3. 주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현황

(단위: 명, 점)

구분		N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신뢰	일반 신뢰		
성별	남성	4,225	-0.001	0.04	0.09	-0.06
	여성	3,960	0.001	-0.03 **	-0.07 ***	0.05 ***
연령	19~29세	1,925	0.05	-0.03	0.27	-0.14
	30~39세	1,830	-0.03	-0.03	-0.03	-0.03
	40~49세	2,148	-0.01	-0.03	-0.14	-0.01
	50~59세	2,282	-0.01 ***	0.10 ***	-0.03 ***	0.11 ***
학력	초졸 이하	24	0.04	0.08	-0.42	-0.08
	중졸	117	-0.08	-0.03	-0.17	0.10
	고졸	3,023	0.01	-0.05	-0.02	-0.05
	대졸 이상	5,021	0.00	0.04	0.04 ***	0.01
지역	대도시	3,598	-0.01	-0.01	0.01	0.01
	중소도시	4,253	0.01	0.02	0.01	-0.02
	농어촌	334	0.02	-0.03	0.07	0.02
가구 구성	1인	962	-0.02	-0.08	-0.16	-0.02
	2인	1,206	-0.04	-0.05	-0.09	0.06
	3인	2,282	-0.01	-0.02	-0.04	-0.02
	4인	2,820	0.02	0.07	0.10	-0.02
	5인 이상	915	0.04 ***	0.04 ***	0.17 ***	-0.02 **
소득분위	1분위	1,624	-0.03	-0.13	-0.29	-0.06
	2분위	1,812	-0.02	-0.03	-0.10	-0.02
	3분위	1,372	0.004	-0.02	0.01	0.02
	4분위	1,638	-0.003	0.05	0.12	-0.03
	5분위	1,739	0.05 ***	0.15 ***	0.30 ***	0.04 ***

주: 사회자본의 영역별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함. 개인 표준 가중치 적용. \*\* p < 0.1, \*\*\* p < 0.001.

자료: 정세정, 김기태, 김태완,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3. <표 3-3-1>.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가구 원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소득분위에 따른 사회자본의 분포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제도 신뢰, 일반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5분위의 사회자본 수준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일반 신뢰 및 네트워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사회자본 보유 수준의 격차가 컸다.

#### 나. 사회자본 보유 유형

다음으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회자본의 보유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 4>에 제시하였다.

지역을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가구 구성, 소득분위에 따라 사회자본 유형의 분포에 유의미

표 4. 주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보유 유형

(단위: 명, %)

구분		N	사회자본 보유 유형		
			높은 수준 사회자본	중간 수준 사회자본	낮은 수준 사회자본
전체		8,185	1,566(19.1)	5,760(70.4)	859(10.5)
성별***	남성	4,225	956(22.6)	2,801(66.3)	467(11.1)
	여성	3,960	610(15.4)	2,958(74.7)	392(9.9)
연령***	19~29세	1,925	422(21.9)	1,320(68.6)	182(9.5)
	30~39세	1,830	320(17.5)	1,306(71.4)	204(11.2)
	40~49세	2,148	360(16.8)	1,523(70.9)	265(12.3)
	50~59세	2,282	464(20.3)	1,611(70.6)	207(9.1)
학력**	초졸 이하	24	4(15.8)	19(77.4)	2(6.8)
	중졸	117	19(16.5)	82(69.8)	16(13.7)
	고졸	3,023	512(16.9)	2,172(71.8)	340(11.2)
	대졸 이상	5,021	1,032(20.5)	3,487(69.5)	502(10.0)
지역	대도시	3,598	653(18.1)	2,541(70.6)	405(11.2)
	중소도시	4,253	848(19.9)	2,989(70.3)	415(9.8)
	농어촌	334	65(19.5)	230(68.8)	39(11.6)
가구 구성***	1인	962	142(14.7)	686(71.2)	135(14.0)
	2인	1,206	195(16.2)	860(71.3)	151(12.5)
	3인	2,282	393(17.2)	1,637(71.8)	251(11.0)
	4인	2,820	642(22.8)	1,933(68.5)	245(8.7)
	5인 이상	915	194(21.2)	643(70.3)	77(8.4)
소득분위***	1분위	1,624	232(14.3)	1,099(67.6)	294(18.1)
	2분위	1,812	306(16.9)	1,295(71.5)	210(11.6)
	3분위	1,372	236(17.2)	1,018(74.2)	118(8.6)
	4분위	1,638	314(19.2)	1,185(72.3)	139(8.5)
	5분위	1,739	478(27.5)	1,163(66.9)	98(5.6)

주: 개인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01.

자료: 정세정, 김기태, 김태완,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8. <표 3-3-2>.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보유한 집단 비율이 높았고(남성 22.6%, 여성 15.4%), 연령대별로는 20대와 50대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 보유 집단 비율이 높았다. 40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보유한 집단 비율이

가장 낮고,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보유한 집단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 보유 집단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는 다른 형태의 가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 보유

집단 비율이 가장 낮고(14.7%)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 보유 집단 비율이 가장 높았다(14.0%). 소득분위별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사회자본 보유 유형의 차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는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 보유 집단 비율이 각각 14.3%, 18.1%로 나타났으나, 소득 5분위는 각각 27.5, 5.6%였다. 즉,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 보유 집단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 보유 집단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다.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 및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후,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집단 간 사회자본 보유 현황과 유형의 분포를 탐색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별 보유 수준 및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를 모두 고려한 실증적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 지표별로 보유 수준이 교차되기보다는 모든 지표에서 높거나, 보통이거나, 낮은 집단으로 구별되었고, 여성·저학력·저소득·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사회자본의 전반적 보유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 보유의 양극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자본의 양극화를 통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사회배제 대응의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선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의 전반적인 사회자본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별로 집단별 사회자본의 분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일반 신뢰 및 네트워크 수준이 높고, 연령 집단 중 40대는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 중 네트워크 수준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와 규범은 학력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 수준은 고학력으로 갈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사회자본 수준이 높아졌는데, 특히 일반 신뢰와 네트워크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더욱 컸다.

사회자본의 모든 하위 지표에서 양극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실증적 유형화 결과, 개념 및 기능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의 하위 지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Cook, 2005), 사회자본 하위 지표들의 수준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 예컨대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 수준이 특히 부족한 여성, 저학력 집단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유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어떠한 유형의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에 어떠한 유형의 사회자본이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회자본을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며,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여 집단별로 표적화된 사회자본 강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통한 '제도'적 측면의 사회배제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제도가 닿지 않거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제도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측면들에 대한 보완 기제로서 사회자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가족 및 개인 등의 영역에서 사회자본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룬 사회자본의 현황 및 유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이러한 과정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사회자본을 통한 사회배제 대응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 참고문헌

김문길, 우선희, 곽윤경, 정해식, 이정운, 김미곤. (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사회통합 상태 진단.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원. (2007). 사회적 배제 완화의 측면에서 바라본 마이크로크레딧의 활동. 민주주의와 인권, 7(2), 195-228.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김기태, 김태완,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보, 33(2), 31-61.

Albano, R. & Barbera, F. (2010). Social capital, welfare state,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5), 677-690.

Berger-Schmitt, R.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ies: Concept and measurement. *Eureporting working paper, 14.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 (ZUMA)*. 21-22.

Bourdieu, P. (1985). The forms of capital. In J.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NY: Greenwood Press.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ok, K. (2005). Network, norms and trust: The social psychology of social capita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1), 4-14.

- Ferragina, E. (2017). The welfare state and social capital in Europe: Reassessing a complex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8(1)*, 55-90.
- Fine, B. (2002). They F\*\*k You Up Those Social Capitalists. *Antipode, 796-9*.
- Kadushin, C. (2004). Too much investment in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26*, 75-90.
- Kuhnle, S., & Selle, P. (1992). Government and voluntary Organizations, Avebury: Aldershot.
- Li, Y., Scriven, A., & Garman, S. (2007). Public health: Social context and action. UK: Sage Publications.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Loga, J. (2018). Civil society and the welfare state in Norway: Historical relations and future rol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3(3)*, 574-591.
- Muthen, B., & Muthen, L.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education and skills. Paris, France: OECD.
- Peugh, J., & Fan, X. (2013). Modeling unobserved heterogeneity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 Monte Carlo simu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4)*, 616-639.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 535-569.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London: Simon & Schuster.
- Rothstein, B.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29(2)*, 207-241.
- Rothstein, B., & Stolle, 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 Rothstein, B., & Uslaner, E. (2005). All for one: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 trust. *World Politics*, 58, 41-72.
- Silver, H. (2007). Social Exclusion: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 and Middle East Youth. Middle East Youth Initiative.
- Spurk, D., Hirschi, A., Wang, M., Valero, D., & Kauffeld,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A review and “how to” guide of its application within voc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0, 103445.
- Svendsen, G. T., & Svendsen, G. L. H. (2016). *Trust, social capital and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 Explaining the flight of the bumblebe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van Oorschot, W., & Arts, W. (2005). The social capital of European welfare states: The crowding out hypothesis revisit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5(1), 5-26.
- Woolcock, M. M. (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Isuma: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11 -17.

#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Social Capital

**Lee, Yung-Soo**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briefly discussed the concepts and measures of social capital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files of social capital in Korea. Four forms of social capital – generalized trust, institutional trust, network, and norms of reciprocity – were deriv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empirical verification on the concepts and measures of social capital. Three different profiles of social capital were further identified based on empirical classification considering multiple forms of social capital simultaneously. A speci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the distributions of social capital across groups differ according to forms of social capital. Findings showed that social capital was unequally distributed acros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and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tended to have low levels of social capital. Findings also confirmed that there we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across forms of social capital. Several implications were further discussed to address social exclusion through strengthening social capital.